선학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제기

선학원 분원장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 등을 골자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6월 25일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 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거취와 별개로, 선학원 구성원인 창건주 · 분원장들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특히 선학원 이사회가 올 초 회의서 재단 등록 이후 각 분원이 취득한 재산까지 증여토록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해 결산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에 사찰을 증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분원장들은 자신이 낸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 · 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현재 선학원 이사회가 의사록뿐만 아니라 예결산 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고, 재단의 재산목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들은 "선학원은 1년에 1회 전국분원장회의를 열고 경상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내역을 개략적으로 열거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 선학원은 2012년부터 전국분원장회의마저 개최하지 않아 구성원들은 재단의 예결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는 지난 1월 24일 선학원 이사회가 개정한 분원관리규정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중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분원장회의 全無
분담금 사용내역 분원장 몰라

선학원은 재단의 분원 창건주(분원장)로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을 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창건주와 운영권자를 해임하고 당해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소송에 참여한 스님들은 "재단은 법인으로서 출연된 재산을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재단에 등록한 분원장들이 등록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증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분원장서 해임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무효인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8대 총림 현황 재조사, 총림은 '냉담'

총림실사특위 첫 회의… 간사엔 도심 스님 선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전국 8대 총림 현황 재조사에 나선다. 앞서 2016년 제16대 중앙종회가 한 차례 총림실사 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출가자 급감에 따라 총림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각림)는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첫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 8대 총림에 대한 실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실사 시기는 총림방장이 주석하는 하안거 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8대 총림에 각각 위원 전원이 방문해 총림요건 충족 여부와 총림운영상 겪는 어려움 등 전반적인 총림 현황파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장 각림 스님은 "출가자 급감에 따른 총림제도의 종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과업으로 총림 수행기관 운영 현황과 적정성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안거 결제기간 중 조심스럽지만 실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간사에 도심 스님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총림실사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 중앙종회사무처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위원 태효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에 이어 17대서도 총림실사가 구성된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총림제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림실사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수년 전, 이미 한 차례 실사를 거친 총림들은 대부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3년 전보

하안거 기간에 전국총림 실사
총림 요건 충족 여부 등 조사
2016년 실사에 이어 두 번째

대부분 총림 현재 요건 미달
출가자 급감에 제도변화 절실
특정 총림 겨냥 우려도 나와

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데다가 당시 실사 이후에도 입법기구 차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특정 총림을 지정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현재 통도사와 수덕사를 제외한 모든 총림이 염불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총림은 승가대학의 최소인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17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가 7월 1일 첫 회의서 총림실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전라권 A총림 관계자는 "염불원이 총림 구성요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염불이 중요한 건 맞지만 승려교육과정에서 염불교육은 반드시 이뤄지기 때문에 염불원에 대한 개념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총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B총림 관계자도 단순한 총림 구성요건보다는 수행가풍과 총림으로서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순히 종헌종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구성요건에 따라 총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총림에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재 규정이 총림 실정에 맞지 않는 과한 규제로 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권 C총림 관계자는 "총림운영은 지역 불심(佛心)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몇몇 지역은 강원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총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 조사 당시 총림 구성요건인 선원 · 승가대학 및 승가대학원 · 율원 및 율학승가대학원 · 염불원을 모두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모든 총림이 염불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덕숭총림이 유일하게 '삼장원'을 두고 염불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총림 승가대학이 최소정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도사가 염불원을 설립하는 등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총림이 자격요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해남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임명

총무원장 원행 스님, 7월 2일 "대중 화합 기대"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前중앙종회의원 법상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본사주지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대중을 화합하고, 역할분담을 잘해 교구를 이끌어달라"면서 "서산 · 사명 · 처영대사의 가풍을 이어 훌륭한 본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법상 스님은 "산중 어른스님과 대중스님들을 잘 모시고 화합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상 스님은 1992년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이 대흥사 신임주지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연등회 빛낸 주역 '아름다운 노고'

연등회보존위원회 7월 2일 2019연등회 참가자 시상식

지난 5월 전국을 환히 밝힌 연등회서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끈 불자들을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7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불기2563(2019)년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8개 단체와 개인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는 20개 단체에 정진상 · 보현상 · 원력상 ·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패도 전달됐다.

정진상은 봉은사 북장엄단을 비롯한 5개 단체가, 보현상은 도선사 어린이 · 학생법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진관사 지화반 화장회 등 7개 단체는 원력상을 받았다. 연등회보존위에 따르면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정성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세대전승과 교육, 연등공방 운영에 적극적이고 모범이 된 단체를 중심으로 시상했다.

특별상은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이 진행되는 곳곳에서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남방불교의 전통문화를 전하고 스님과 신도가 함께 질서정연한 행렬을 보여준 태국불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9연등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주최 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마당에서 호응이 높았던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에 모범이 된 '소을소리판' 민혜성 대표와 천태종복지재단, 탑골관람석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현장안내를 도운 조홍매 씨와 시마다 마사코 씨 등도 표창패를 받았다.

연등회보존위는 "시상식은 순위를 매겨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 노력과 정성, 적극성과 열정으로 연등회를 함께 준비한 사찰과 단체의 격려 자리로 마련했다"며 "올해 연등회를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고 돌아보며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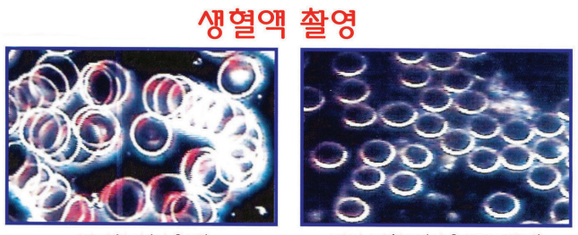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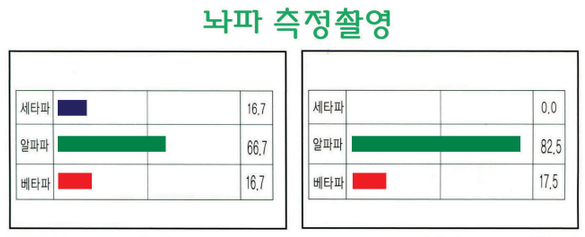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